

# ‘박스권’ 이재명, 실용주의 공약으로 지지율 높이기 총력

### “권력 분산된 4년 중임제 필요” 대선 경선주자들 정책 공약화 민주당, 윤석열 후보 공세 강화 김건희씨 재산형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이전 지지율 제고를 위해 개헌론 이슈를 점화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종 이슈를 선점, 설 연휴 이전에 지지율 단독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준비된 대선 주자로서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대선 중반전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 선대위 내부적으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각종 약제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보다는 30% 중후반대 박스권에 갇혀있어 ‘이대로 간다면 정권 재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당내 일부에서는 여전히 대선 활동에 미온적이라는 판단 아래, 보다 적극적으로 대선에 집중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MBN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시점은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돌아가며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함께 이낙연·정세균·유승민 등 대선 경선에 나섰던 여야 인사들의 대표 정책들을 빌려와 공약화하고 있다. 정치색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탈이념 경향을 보이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신복지’ 정책을 전면으로 내건 복지 공약을 공개한 데 이어 후보 직속의 신복지위원회를 띄우면서 당내 원팀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또 이 후보의 개헌론도 대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이어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에 나섰다. 김씨에 대한 공세가 허위이력 기재, 7시간 통화 녹취록에 이어 재산형성 의혹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씨의 학력·경력·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거래내역, 재산신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1991년부터 총 소득은 7억7000만 원 정도”라며 “그런데 김씨가 2021년 신고 재산은 69억2000만 원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TF 상임단장은 “대학 강사료와 월급 200만 원 정도가 주요 수입원이었던 김씨가 어떻게 30대에 수십억의 주식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재산증식과정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모씨와 관련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소개를 해 주고, 김씨의 힘으로 캠프에 가서 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선 낙관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현재 상황(지지율 추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설 연휴 이전에 이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거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권재창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가 19일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형석 의원과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조성식 의원, 정태호 의원,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이 참석했다. <민중당 광주시당 제공>

## 이해찬 “집권하면 가만 안둬” 김건희 발언 굉장히 심각

### 민주당, 광주서 미래시민광장위 출범

### “설 연휴 거치며 지지율 변화 올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일부 발언에 대해 “대통령 후보 부인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들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출범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쌍하다’고 언급한 김씨의 발언을 두고 이 같이 평가했다. 이어 “내가 집권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김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굉장히 심각한 말이며,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그는 “(김씨는) 모든 것을 공인 의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이해관계로 인식하는 그런 수준에 있

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선 판세를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지지율이) 붙어 있다”며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설이 끼여있는 연휴 기간에 이뤄지는 여론 지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역대 선거를 보면 본선(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 지지율 40%가 넘는 후보가 거의 없었다”면서 “현재 38%의 지지율을 볼 때 투표율이 80%라고 보면, 45%의 득표율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 후보 등록을 하고 유세차량을 타고 다니고 TV토론 이뤄지면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것이다”면서 “(현재 지지율이) 설 무렵까지는 유지될 것이며, 이번 설은 연휴가 길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

고, 그 전에 토론회도 열리면서 후보 간 진검승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식 의원은 “지난 연말 연초 이 후보의 총 여론 조사를 보면 30% 후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 지지율에서 출렁임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면서 “아직까지 대선구도가 다자구도 형태다. 그런 상황에서 30% 후반대를 안정적 유지하고 있는만큼 박스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자토론도 그렇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대결 가능성이 높다”면서 “설을 거치며 후보들 검증이 받으며 지지도 상승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에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목표고, 그 시작을 광주에서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이재명·윤석열 TV토론 설 연휴에 열리나

### “30일·31일, 지상파에 제인”

### 민주당·국민의힘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을 설연휴 기간에 실시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1안은 31일, 2안은 30일이다. 역대 대선후보 TV토론을 명절 연휴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

적이다. 앞서 여야는 설연휴 이전에 양자토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설연휴 기간인 ‘31일 저녁 황금시간대’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과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1안은 31일 오후 7~10시 사이에 중계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 방

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31일(토론)을 1안으로, 30일을 2안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저지는 수용했다”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상파 방송 3사가 양자 토론을 27일 개최하지고 제안한 데에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설날 전날 밤인 31일에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다시 협의를 벌였다. /연합뉴스

## 민주 “윤석열, 건진법사 말 듣고 신천지 압색 거부”

### 양부남 단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지원단 양부남 단장은 이날 윤 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으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전모씨)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당시 윤 총장이 신천지 이만

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 무속인에게 자문했으며,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무속인의 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가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 담당 공무원의 신천지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종교인 이만희와 신천지교회 강제수사를 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큼에도 수사기관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우니 부득이하게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